

IV. 2018년 주요 시책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활기있는
지역경제

소득높은
농축어업

매력있는
문화관광

온정있는
도민복지

소통하는
창의도정



1. 미래변화에 대비한 지역발전전략 수립

2.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3. 농어가 소득 향상과 미래 농수산업 육성

4. 관광·문화 자원의 품격과 매력 향상

5.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6. SOC 확충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

7. 도민 안전 강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

8. 상생하고 소통하는 열린 도정 구현

01

미래변화에 대비한 지역발전전략 수립

민선6기 시책을 잘 마무리하고,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민선7기 출범을 준비하겠습니다.

▶ 인구정책 및 4차 산업혁명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시행

④ 민선6기 성공적 마무리, 민선7기 출범 준비 / 21

⑤ 인구문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 선도 / 22



1

민선6기 성공적 마무리, 민선7기 출범 준비

□ 민선6기 도정 주요시책 성과분석

- 민선6기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민선7기 운영방향 설정 및 발전전략 수립에 활용
-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광주전남연구원과 협업연구 및 성과분석을 실시해 시책별 보완·발전방향 도출

□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와 민선7기 도정비전 제시

-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빈틈없이 준비
 - 선관위, 시·군과 협력해 공명선거 관리, 주민 투표 참여 독려 등
- 민선 7기 도정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간 연계발전 정책 개발
 -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시군별·권역별 발전방향, 성장동력 프로젝트 개발

□ 「전라도 정도 천년」 새로운 도약의 기틀 마련

- 전라도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이미지 개선사업 본격 추진
 - TV 캠페인 방영, 천년사 편찬, 특별전시전 개최, 슬로건 및 앰블럼 SNS 활용 등
- 기념식 및 학술·문화행사를 개최, 전라도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
 - 천년맞이 타종식('18.1.1./광주), 천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18.4.18./장흥), 전라도 천년 기념식('18.10.18./전주)
 -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운영, 광역 투어버스 운영, 국제 관광 컨퍼런스, 미래 천년 포럼, 사도립 국악단 특별공연, 해외 호남향우 고향방문 행사 등
- 문화유산 복원, 랜드마크·천년 숲 조성 등을 통한 문화관광자원 창조
 - 나주목 관아복원 및 나주 읍성권 재생(성벽공원 조성), 전라도 천년 정원 조성 (나주 일원 / 실시설계 용역 실시),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15개 시·군, 55km) 등

2

인구문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 선도**□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 종합대책 수립·시행**

- 2030년 인구감소율 제로화를 위해 '제1차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18. 상반기)하고, 지역사회 총력 대응체계 구축
 - 「범도민 인구문제 극복 추진 운동본부」 발족('18. 8.), 전라남도 인구의 날(7. 11) 주간 행사 추진, 인구문제 극복 공모사업 추진(5개 시군, 20억원)
- '전남 인구정책위원회' 운영(분기별 1회), 인구정책 전담조직 확대 · 개편으로 인구문제 종합 조정·기획 기능 강화

□ 4차 산업혁명의 체계적 대응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 '전남 4차 산업혁명위원회'('18. 1월 구성)를 중심으로 도 차원의 종합 계획을 수립해 적극 시행
 -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등 정책과제 발굴·추진
- '전남 4차 산업혁명 전략포럼'을 개최해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미래변화와 주요 이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 4차 산업혁명 주요 트렌드 및 연계전략, 공공·민간분야 우수사례, 전문가 정책제언 등

□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와 한미 FTA 개정협상에 적극 대응

-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 등과 연계·협력해 지방 분권형 개헌 논의에 대응하고, 지방분권 분위기 확산
 - 지방분권 TF 운영('17. 7., 30명), 지방분권 개헌 천만 국민 서명운동 전개
 - 지방분권 4대분야 13개 건의과제 정책반영 추진,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 정부의 정책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철강·농축산물 등 개정협상 예상 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 및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 민·관 공동 TF팀 운영, 산업별 영향 분석 및 피해예방 정책 건의과제 발굴

02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미래 일자리 수요가 큰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지역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습니다.

- ▶ 기업 유치 290개 사(고용 인원 14,500명), 투자실현 170개사(고용 창출 5,700명), 청년 고용률 제고(34.1%→34.5%)

- ▷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 지원체계 강화 / 25
- ▷ 좋은 일자리 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 / 27
- ▷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28
- ▷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 신산업 육성 / 29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 31
- ▷ 도민과 함께하는 경제정책 추진 / 32



1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 지원체계 강화

□ 일자리 지원체계 대폭 보강

- 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남 기술창업지주회사」를 설립하고, 30개 자회사 육성
 - 소재·에너지·바이오·농수산 등 지역특화산업에 5년('18~'22)간 75억원 투자
- 일자리 지원기관*들을 한 곳에 집적화하는 '전남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으로 일자리창출 동참 분위기 확산
 - 고용우수기업 인증(10곳, 기업당 2천만원), 일자리창출 우수 10개 시·군 지원
 - * 고용혁신추진단, 일자리종합센터,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비정규직지원센터 등 8개기관
- '전라남도 일자리 통합망' 보강으로 기업현장 일자리 매칭 확대
 - 동부권(순천), 서남권(목포), 중부권(나주 혁신도시)의 일자리정보 통합 허브(Hub) 기능 강화, 잡매칭데이 운영 6회(오프라인 4, 온라인2)
- LH 소유의 빙 임대상가(목포시 트윈스타 건물)를 활용해 일자리 상담 및 소셜벤처 창업 지원
-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 호남권 직업체험센터를 건립('16~'20)해 미래 직업 체험기회 제공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청년이 선호하는 취업·창업 지원 확대

- 청년 마을로^{*}(마을 청년 활동가) 및 청년 내일로^{**}(공공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
 - * 청년 100명을 지역·마을기업, 비영리법인·단체에 배치(180~200만원 지원/1인당)
 - ** 청년 104명에게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생활임금 7,688원~9,370원 지원)
-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600명→800명, 1인당 1,200만원), 도↔목포대↔우정청 간 협력으로 글로벌 셀러 지원시스템^{*} 구축
 - * 예비·초기창업자 20명 대상, 해외마켓 진출을 위한 교육·멘토링 및 해외배송료 지원

- 대학 내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확대 운영(8개 대학 10개 과정 → 9개 대학 13개 과정) 등 청년 창업활동 지원 대폭 강화
 - 대학일자리센터(3개소), 대학창업보육센터(7개 대학), 대학벤처동아리 운영(30개), 창업선도대학(순천대),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전남TP 내)
- 전통시장, 관광지 주변에 청년몰을 조성해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사업 운영(점포당 최대 30백만원 지원)
- 청년 일자리카페 신설(4개소) 및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탐색과 청년상인 자생력 제고
 - 특성화고 졸업생 「선취업 후진학」 과정(2개), 「청년 희망버스」 운영(12회)
 - 청년상인 창업지원(브랜드 개발 4개소, 사업자금 지원 400명/200억원)

□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 지역·산업수요에 맞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조기 퇴직자 재취업을 지원하는 「전남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제도 신설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1,000명), 기업맞춤형 인력양성(2,50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1,000명, 43억원), 공공근로 일자리(2,600명, 101억원)
 - * 조기퇴직자 재취업 시 10개월간 고용유지금 및 취업장려금 지원(총 8백만원/1인당)
- 시·군 일자리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각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 동행 일자리」사업 시행
 - 교육훈련, 취업·창업지원, 일자리 환경 구축 등에 재정지원(120억원)
- 전남형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 육성(1,050개)하고, 사회적경제 성장기업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146개→186), 마을기업(204개→244), 협동조합(558개→620) 확대, 「사회적경제육성 기본계획('16~'20)」 보완, 사회적경제 전용 신용보증 운용(30억원)
-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창업 3~7년차 기업대상 「데스밸리 극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컨설팅·제품개발·공정개선·특허·홍보 등을 지원(5개 기업, 총 1억원)

2

좋은 일자리 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

□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가속화

- 에너지밸리에 올해까지 에너지·SW융합 기업 350개사 유치
 - ESS(에너지저장시스템), AMI(지능형계량기), LVDC(저압직류),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집중 유치
- 기숙사(월 30만원 이내) 및 통근버스 임차(최대 5억원 한도) 지원, 연구·실증 인프라 확충 등으로 에너지밸리 투자여건 개선
 - 나주 혁신산단 에너지신기술 실증센터 건립(1,000억원, '18. 9월 착공)
 - 혁신도시 클러스터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준공(242억원, '18. 9월)
- 광주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전남 3.2㎢)을 추진하고, 한전공대 설립 용역 발주('18. 3.) 및 에너지신산업 강소기업 유치 추진

□ 4차 산업혁명 기술 보유기업 등 고용창출 기업 집중유치

- AR(증강)·VR(가상)·ICT·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보유 기업 유치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빛가람 콘텐츠타운 조성, 지능형 ICT전력시스템, IoT기반 솔루션 유망기업 합작투자 유도
- 정밀화학·에너지·제약바이오·수상호텔·농수산물가공식품 분야 해외 기업 유치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프랑스 화학기업(1,200억원), 미국 수상호텔(600억원), 유럽·미주 제약기업 등
- 해안(섬) 우선개발 대상지 10개소^{*} 투자자 발굴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로드맵 마련
- * (신안) 임자노대·자은·안좌(고흥) 과역(영광) 영산(무안) 운남(완도) 신지(보성) 회천(해남) 화원
- 분양률 30% 미만 산단 및 농공단지(9개소*)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강화로 '20년까지 분양률 50% 달성
 - * 산업단지 : 목포(대양·세라믹), 나주(혁신), 담양(담양), 장흥(바이오), 강진(강진) / 농공단지 : 장흥(장흥), 진도(군내), 영암(식품)

3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조선산업 활력회복을 위한 기반 구축

- 소형선박 건조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해양레저 장비산업 육성
 -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16~'21, 180억원), 레저선박부품기자재 고급화('17~'21, 200억원), 중소형선박 공동건조 기반조성('19~'23, 200억원)
 - 요트시티 조성사업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18. 3.~'18. 8, 50백만원)
- 해경 제2정비창을 유치해 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본격 추진
 -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18. 2월), 선박수리지원시스템('18~'22, 235억원),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19~'23, 200억원) 기반구축사업 추진

□ 석유화학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 화학소재산업으로 전환

- 추진 중인 기능성 소재 사업화 기반 구축사업 계획기간 내 완료
 -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광양세풍, '15~'20, 602억원),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조성(해룡산단, '16~'19, 226억원)
 - CO2 고부가가치사업화 플랫폼 구축(여수삼동지구, '17~'21, 214억원)
-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첨단 화학소재·부품 개발사업 국고확보 추진
 - 첨단화학소재 개발 플랫폼 구축(400억원), 고기능성 특수탄성소재 산업화 (924억원), 수송기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 개발(420억원)

□ 철강산업은 고부가가치 경량소재산업으로 고도화

- POSCO, 재료연구소, 산업부 등과 협력해 순천 해룡산단을 글로벌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 단지로 조성('18~'22, 308억원)
- 전남테크노파크의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해 금속소재 가공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 수출형 기계부품 가공산업 육성기반 조성(율촌산단, '18~'22, 308억원)
 - 금속가공 열처리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광양익신산단, '18~'20, 90억원)

4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 신산업 육성

□ 에너지신산업 성장기반 확충 및 연구역량 강화

○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 신기술 실증센터('16~'20, 745억원), 동수농공단지 MG 플랫폼·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조성 등(660억원)
-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현장적용 실증기반 및 부품평가기반 구축(곡성, 380억원)
-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시험설비 기반 구축(나주혁신산단, 203억원)

○ 에너지신산업 SW융합 클러스터 구축('16~'20, 320억원)

- 에너지신산업 SW융합분야 고용창출 105명, 창업 45개사, 전문인력 300명 양성

○ 에너지기업 중심 산단 개발 및 차세대 ESS 생태계 조성('19~'21, 3,000억원)

- 나주혁신산단 확장(56만m²), 스마트 시티 국토부 공모사업 참여(2개소, 1,159억원)
- ESS 인증센터(345억원)·재활용센터(400억원) 구축, 실증사업 등(2,255억원)

□ 생물의약·항공·드론 등 미래 유망산업 육성

○ (생물의약) 화순~나주~장흥을 잇는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및 한의약 산업기반 조성

-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18~'22, 4,713억원),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착공('18. 6월),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조성('18. ~'21, 200억원)
-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착공('18. 3월), 한약 약효성 검증 연구시설 건립('17~'19, 95억원)

○ (자동차산업)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 e-모빌리티 실외 평가기반 구축('18. 3. 착공),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14~'18, 317억원),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기반 구축('15~'20, 300억원)
-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17~'22, 162억원), 빛가람 혁신도시에 전기차 시범마을 조성('17~'25, 1,200억원)
- '18년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추진(영광군 전기자동차산단 일원)

- (항공·드론) 비행성능시험·평가시설 등 산업기반 조성
 - 고흥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18. 3월 착공, '18년 97억원)
 -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구축('18년 10억원), 드론·전기차 등 첨단 운송기기 부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15억원) 추진
 - (세라믹소재) 세라믹을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산업으로 발전
 - 첨단 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18년 48억원), 해양 융·복합 소재 산업화 지원사업('18년 15억원) 본격 추진
 - (레이저가공) 생체흡수용 의료 스텐트 기술개발 및 Bio-IoT센서 산업 육성
 - 차세대 스텐트 공정혁신 기술고도화(장성나노산단, '18~'22, 50억원)
 - Bio-IoT센서 산업육성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장성나노산단, '18~'22, 50억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인프라 확충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해 '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30% 달성
 - (태양광) 해남 헐도간척지(340㎿), 영암 금정(98㎿), 고흥호(80㎿) 등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25년까지 3.3GW 설비 증설('16년 1.1GW 가동)
 - (풍력) 완도 금일(600㎿), 신안 자은(400㎿), 영광 안마도(220㎿) 등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25년까지 2.5GW 확보('16년 0.2GW 가동)
 -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풍력·조류발전 인프라 확충
 - 조류발전시험장 구축('17~'21, 280억원),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19~'23, 480억원)
 - 신안 안좌~무안 운남, 신안 안좌~해남 화원 구간에 송전망 교체(1,500억원)
 - 목포 신향만에 해상풍력 전용부두·배후단지 조성(2,180억원) 국가지원 건의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절감시스템 개발
 - 마을 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70개소 조성('18~'22, 151억원) * '18년 5개소
 - 취약계층 주택, 공공건물, 아파트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117억원)
 - 태양광 이모작 스마트 영농시스템 실증개발('16~'19, 11억원) 등 3개 사업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 강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 기술력과 성장성을 지닌 **강소기업 집중 육성**
 - 전남형 강소기업 20개사(2억원), 글로벌 강소기업 15개사(8.6억원) 육성
 - 스마트팩토링, R&D 과제기획, 마케팅, 성장전략 수립 지원 등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청년펀드 신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3,800억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출금리 지원
 - 창업지원펀드 확대(180→300억원 / 청년펀드 120, 엔젤펀드 50, 빛가람펀드 130)

□ 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실적 공시제**' 운영
 - 45개 기관(도, 시·군, 공사·출연기관 등) 참여 2.9조원 구매 목표
- **홈쇼핑, 오픈마켓,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판매처 개척**
 - 홈쇼핑 판매지원(9개사),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50개사)
 - 서울국제소싱페어(15개사), 업종별 특화된 박람회 참가(50개사)

□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및 전통시장 육성

-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확대(2시→ 22개 시·군) 하고, 소상공인 **신용보증 강화**(신용보증 4,850억원, 햄살론 150억원)
- **자영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소상공인 경영 전문성 강화
 -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개소('18. 7월), 소상공인 창업 전문교육(연 160명)
 - * 상권분석 및 과밀업종 제한, 경영컨설팅, 폐업손실 최소화 등 지원
-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문화·예술 융합형 전통시장 육성**
 - 안전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19개소, 117억원), 문화예술 융합형 시장 육성 (3개소, 19.8억원), 문화관광형·골목형 시장 육성 정부 공모사업 참여('18.1월)
 - 전통시장 청년창업 기반조성(2억원), 지역방송 활용 전통시장 홍보 (1.2억원), 전남우수시장박람회 개최(1억원)

6

도민과 함께하는 경제정책 추진

□ 신뢰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 전국 최초 11년 연속 노사평화지대 구축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협력프로그램 내실 운영**
 - 노사화합프로그램 운영 : 14개 3억원(산업평화실천행사 등)
 - 노사민정협력사업 운영 : 10개 1.4억원(노사갈등조정·해결 등)
 - * 10년('08~'17) 연속 노사민정 협력 (최)우수기관선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확립
- **경제전문가·단체 의견 수렴으로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
 - 전남경제포럼(분기 1회),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연 2회), 경제현안 분석 전문가 회의(연 2회), 소비자단체 간담회 등(수시)

□ 기업체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강화

-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고용인원 30인 미만 사업체 및 주민대상 홍보 강화, 읍면동 접수창구 설치
- 노동 취약계층 권리보호와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임금 인상 및 수혜대상자 확대**
 - 생활임금 인상 : ('17) 7,688원 → ('18) 9,370원(광역자치단체 1위)
 - 수혜 대상자 확대 : 도 및 산하기관 근로자 → 도 위탁사무 기관 근로자

□ 공공요금 적정관리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확대

- **소비자 권리보호와 지방 공공요금 적정관리로 서민경제 안정**
 - 도 소비생활센터 운영, 전남 소비자생협 인가 및 관리
 - 소비정책위원회 운영(2회), 물가모니터단 운영(6명), 착한가격업소(323개소) 운영
- 섬 지역 LPG소형저장시설 보급과 농어촌·섬 지역 전기·가스 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
 - 전기안전점검(300가구), 타이머록 보급(6,000가구), 도시가스시설(8,000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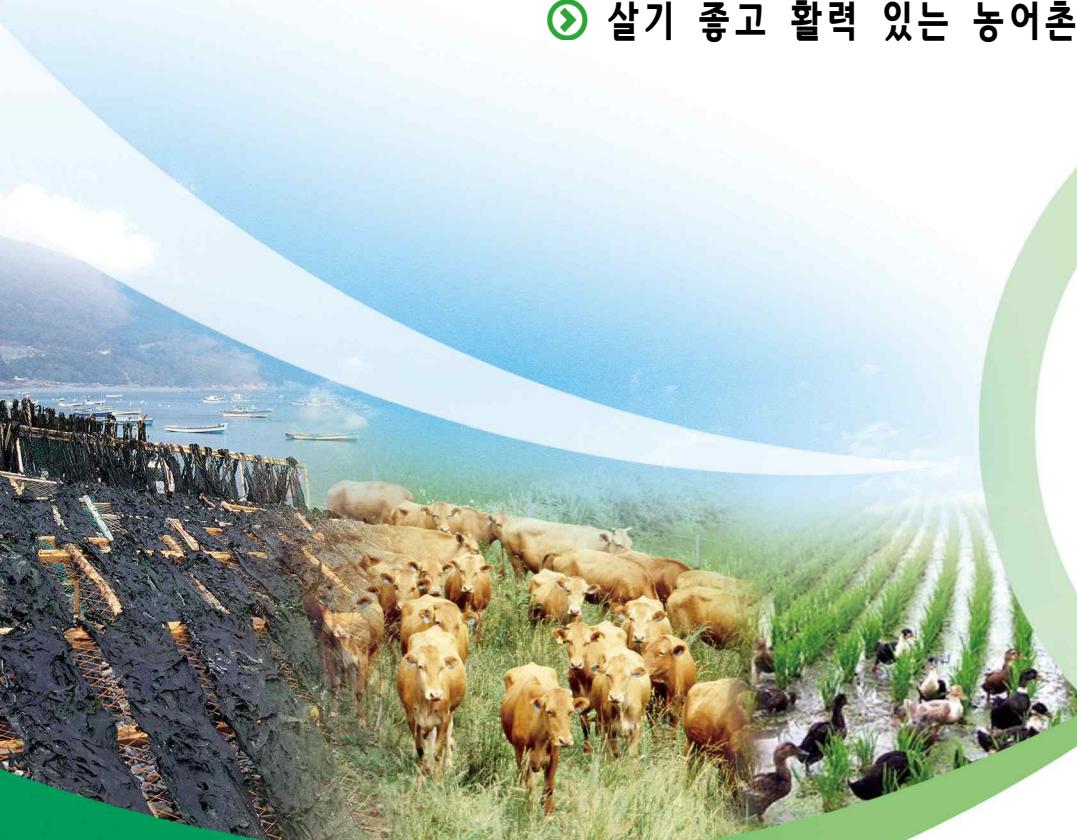
03

농어가 소득 향상과 미래 농수산업 육성

농어업 경쟁력을 높여 '억대부농 5천 호'를 육성하고, 어가소득을 '5천만 원'으로 높이겠습니다.

▶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8%→11.1%), 수산물 가공률 제고(20.7%→25%)

- ④ 저비용·고소득 농업구조로 전환 / 35
- ④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 / 37
- ④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확대 / 39
- ④ 산림 자원의 산업적 가치 제고 / 40
- ④ 수산자원의 고소득 기반 구축 / 41
- ④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 43
- ④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 / 44



1

저비용·고소득 농업구조로 전환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확대

- 작목별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25개 작목), 쌀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11개소, 190ha) 및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126.5ha)
- 밭작물 기계화 실용기술 보급(14개소, 147ha) 및 밭작물 무인 작업 기술 개발로 노동력 절감
- 축종 개량·사양관리·사육환경 개선, 농산부산물 활용 자가 배합사료 제조기술 개발·보급(4개소)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

 4차 산업혁명 활용기술 개발 현장 보급

- 첨단기술과 융합한 미래 농산업 기술 개발을 위해 스마트팜, 드론 이용 농작업, ICT 융복합 생산관리시스템 보급
 - 첨단 스마트팜 단지 조성(30ha), 저가 보급형 스마트팜 모듈 개발(3종)
 - 드론 이용 병충해 방제·예찰 및 토양분석, ICT 융복합 기술 보급(24개소)
- 작물 생산량 등 농산업 빅데이터 정보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 빅데이터 기반 토양 양·수분관리, 시설채소·특화작물 생육·유통정보 제공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농업인 경영안정

-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인상 및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1,989억원)
 - 밭고정직불금(45만원→50만원/ha), 조건불리지역직불금(55만원→60만원/ha)
-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확대 (802→10,698ha, 340만원/ha)하고, 들녘 경영체 육성 추진
- 채소류 생산농가 소득보전 및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12개소)
 - 채소가격안정제 확대(4→5개 품목),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지역 확대 (1~2개→4~5개 시·군), 무·배추·양파·마늘·고추농가 재해보험 가입독려

□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산업 육성

- 가공업체 지원을 확대(17개소)하고, 위생시설 확충(3개소)으로 생산·유통·판매까지 위해요소 철저 관리
 - GAP 인증(1만ha), GAP시설 기준에 부합한 위생시설·장비 지원(6개소)
- 품질인증을 통한 전남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식품기업과 농가 간 상생협력 확대(MOU 8건→16건)
 - 도지사 품질인증(1,027개 제품), 유기농식품인증(907개 품목)
-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시군 가공거점기관으로 육성(9개소)하고, 지역 특산자원을 이용한 상품개발(5건) 지원

□ 농산업 6차 산업화 확산

- 비교우위 향토자원의 6차산업화로 농외소득 증대
 - 향토산업 육성(12개소), 6차산업 지구 조성(5개소) 및 인증경영체 육성(220개소)
 - 고흥 유자, 곡성 멜론지구를 6차산업화 전국 우수모델로 육성(30억원)
- 농촌의 생태·문화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 활성화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확대(3→4개소), 농촌축제 지원(7개소)
 - 농어촌 인성학교 인증확대(16→18개소), 경관농업직불제(6,240ha)

□ 생산자·수요자 맞춤형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조직화로 시장 경쟁력 제고
 - 농산물 공동 출하(13개 시·군) 및 마케팅활동 지원(11개 시·군)
 -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442개소), 꾸러미 생산자조직 육성(21개소)
- 신선농산물 온라인 판촉 강화 및 직거래 활성화
 - 남도장터 입점품목 확대(4,000개→4,500개 품목), 대형 오픈마켓과 제휴 확대(10→12개소), 우수농산물 TV홈쇼핑 판매지원(15개업체)
 - 대형유통업체 납품(96개업체), 직거래장터 운영(650회), 로컬푸드 직매장(24개소)

2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 마을단위로 유기농 생태마을을 조성(2개소)해 유기농 인증면적을 9천ha('17년 7,936ha)로 확대
 - 유기농업 기술 확산(3개소, 10ha), 유기농 채소단지 조성(7개소, 11ha)
 - 새끼우렁이(65천ha), 유기농자재(2,075ha),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695천톤) 공급
- 마을별·들녘별 10ha 이상 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저비용 영농기술 보급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3개소), 화훼·특용작물 친환경기술 보급(10개소)
- 품목별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를 차등 지원해 인증품목 다양화 및 채소·과수 재배농가 부담 경감
 - 유기농 : 벼 1,200천원/ha, 채소 1,300천원/ha, 과수 1,500천원/ha
 -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5㏊, 한라봉·무화과·포도 등)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안정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고, 유기농 종합 보험료(100%)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18천건)
 - 친환경농업직불금(16천ha),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18천ha) 지원
- 저비용·고효율 유기농법 전수, 친환경농가 의식전환 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 정착과 실천의지 확산
 - 유기농 확산 다짐대회(1천명), 시군 순회교육(5천명)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생산·유통 감시체계 확립
 - 친환경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23개소), 친환경 메신저(102명), 명예 감시원(140명), 제초제·화학비료 사용농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기반 강화

- 지역 향토기업의 가맹점을 늘려(118→123개소) 친환경농산물을 판매망을 확충하고, 도내 생산 친환경농산물 제조·가공기업 지원
 - 식품제조·가공 시설·기계장비(25억원), 친환경 쌀 가공 전문 식품기업(10억원)
- 3대 생협과 협력해 친환경농식품 가공·상품화 기반을 확충하고, 생협의 전국 판매망을 활용해 친환경농산물 유통
 - 아이쿱생협(채소, 곡류), 한살림생협(밀, 쌀), 두레생협(유채)
- 지난해 10월 개장한 나주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와 연계해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체계' 구축
 - 수도권에 물류센터를 보유한 기업과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계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 서울시 등 타 시·도 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납품 확대
 - (학교급식) 쌀·과채류 납품 : '17) 10,721 → '18) 12,000톤
 - (공공급식) 서울시 공공급식 산지 지자체 선정 : '17) 2 → '18) 4시·군
- 도내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전국 「친환경 농산물자조금협회」와 연계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활동 전개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지원(2,628개교), 학교급식 쌀·과채류 납품(12,000톤)
 - 안전성 검사비 지원(521백만원), 친환경 식재료 안전점검(93회), 안전성 교육

□ 전남쌀 품질 고급화 및 판매 활성화

- 쌀 건조·저장시설 현대화 및 우수 브랜드쌀 홍보 마케팅 강화
 -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6개소), 우수 브랜드쌀 판촉(대형마트 등 10개소)
 - 수도권 중심 TV·라디오, 신문·잡지, 홈쇼핑 등 집중 홍보(34개 매체)
- 대형 유통업체 입점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 서울·경기 소재 대형유통업체 입점 확대 : '17) 46 → '18) 54개소
 - 중국·미국·몽골 등으로 수출 증대 : '17) 56 → '18) 70톤

3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확대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여건 조성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 확대(60→200호)
 -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획득 시 자재 구입비 지원(농가당 3백만원/년)
- 악취가 없는 주민 친화적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300호)
 -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및 축산농장 악취저감사업 추진(10종)
- 정부의 단계별 유예기간에 맞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3,531호)
 - 농가별 담당공무원제(1,161명) 및 매주 수요일 상담의 날 운영으로 원스톱 처리
 - * 1단계('18.3.24.까지) 1,464호→2단계('19.3.24.까지) 272호→3단계('24.3.24.까지) 1,795호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판매 활성화

- 조사료 품질 향상 및 생산·이용 확대로 사료비 절감
 - 조사료 생산(49천ha), 재배 전문단지 지정(14천ha), 품질 평가기관 운영(13개소)
-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 시설 지원 및 축산물 브랜드 육성
 - 한우 광역브랜드에 가공장비 지원(2개소), 축산물 가공장 설치·개보수(20개소)
 - 가축시장현대화(1개소),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17~'19, 나주)

 선제적 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

-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강화 및 구제역 청정지역 지속 유지
 - 발생 위험농가 사육제한, 오리 입식 사전 승인, 철새도래지 폐쇄(10개소)
 - 소규모농가 소독지원 공동방제단 운영(87개단), 연 2회 구제역 일제접종 정례화
-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 컨설팅 지원 및 인증 확대
 - HACCP 컨설팅 지원(59개소), HACCP 인증 확대(1,211→1,270개소)

4

산림 자원의 산업적 가치 제고

□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내실화

- 1천만 그루 나무(경관숲 330, 소득숲 670)를 식재하고, 역사·문화·경관을 반영한 전남 대표 상징숲 조성
 - 섬마을항로변 난대숲(100ha), 해안가시권 경관숲(790ha), 영산강 경관숲(3개소)
- 경제림 중심의 숲가꾸기와 생활권 주변의 숲 조성
 - 동백숲(50ha), 황칠특화림(100ha), 호두·페칸 등 견과류(60ha), 밀원숲(200ha)
 - 숲가꾸기(32천ha), 부산물 수집(64천 m³) 및 나무은행 운영(22개소)
 - 생활권(35개소), 복지시설·학교(24개소), 주민참여숲(91개소)
- 주민 스스로 꽃과 나무를 가꾸는 「花木한 생활운동」 확산
 - 3대 참여정원 조성, 숲 돌보미 확대(14천명→20천명), 칡덩굴 제거(7천ha)

□ 정원문화산업 활성화

- 신 남도정원 조성(담양 사군자정원, 강진 다산원) 및 민간정원 발굴·확대(4개소→8개소)로 정원의 관광자원화
-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정원산업 발전기반 구축
 - 정원산업지원센터 개장('18.3), 자재유통판매장('17~'18), 묘목유통단지('17~'18)

□ 임업인 소득 증대 기반 확충

-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 이용기반을 마련하고, 임산물 생산의 현대화·규모화 촉진 및 가공·유통 활성화 도모
 - 임도 신설(88km), 생활권 등산로 정비(271km), 목재문화체험장 조성(1개소),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271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122개소)
 - 저온저장시설(1천m³), 유통기자재(21개소),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설(5개소)
-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여 임가 소득 창출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10개소), 밤나무 대체작목 재배 지원(24ha)
 - 친환경 인증 확대(5,900ha→6,400ha), 임산물 상품화 지원(64개소)

5

수산자원의 고소득 기반 구축

□ 양식어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 새우, 해삼 등 수출이 유망하고 수입대체 가능한 고소득 양식 품종 집중 육성 및 우량어류 종자 생산기반 확충
 - 새우 중간육성장(6개소), 해삼 대량양식장(1개소), 마을어장 해삼 씨뿌림(6개 시군)
 - 우량종자 보급 배양장(1개소), 고소득 바리류 우량종자 생산시설(1개소)
- 첨단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시설 현대화·자동화
 - 양식시설 현대화(223개소), 전복양식장 관리기(20대), 해조류 종자 이양기(20대) 지원
- 안전하고 편리한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고효율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 다목적 인양기(36대), 다기능 부잔교(65대), 육상수조 냉·난방 시설(14개 시군)

□ 기후변화 등 미래대비 전략품종 개발·보급

- 기후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적응 신품종 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
 -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김·꼬막·전복 등 우량종 보존 및 품종 개발
- 고부가가치 품종 연구개발 강화로 미래 소득기반 마련
 - 낙지·참조기·갑각류·뱀장어·전복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

□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본격화

- 목포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해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
 - 예비타당성 조사 중('17.3~계속) '18년 국비 25억원 확보(총사업비 1,000억원)
 - 수산물 가공공장, 하치장, 냉동·냉장 창고, 전시 판매장 등 56개실
-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으로 해양수산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 제시
 - 연구용역 실시 중('17.12~'18.12), 전시관·체험관·연구시설·교육관 등
- 국립 해양수산 연구기관 유치로 연구협력 시스템 확장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원, 국립김산업연구소

□ 수산물 고차 가공 및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

- 신선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품질관리형 생산기반 구축
 - 수산식품거점단지(화순), 산지가공시설(27개소), 저온저장시설(139개소)
 -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처리시설(7개소), 지리적 표시제 등록 확대(20→22개 품목)
-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경로 확대에 기여할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추가 조성(장흥)
- 지역별·품목별 특성화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지방어항을 유통·물류·관광이 연계된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조성
 - 수산물 위판장(2개소), 유통센터(4개소), 완도항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완도)
 -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목포),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진도)

□ 수산물 수출기업 육성 및 어가 경영안정 지원

- 김, 전복 등 수출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자생력 제고
 - 수출 상품개발, 통관·운송, 해외마케팅 등 기업 컨설팅(2개소)
- 청탁금지법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 지원 및 판로 확대
 -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100개소), 모니터링(2회), 직거래장터 운영(2회)
- 재해보험 및 수산직불제 지원으로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4종, 42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어가당 60만원)

□ 천일염 가격안정과 경쟁력 제고

-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포장 자동화 추진
 - 친환경 바닥재(161㏊), 염전주변 환경정비(2,967톤), 근로자 쉼터(14개소)
 - 자동 채염기(115대), 반자동 포장기계(24대), 스마트염전 시범사업(20개소)
- 천일염 수급안정을 위한 저장·유통시설 확충
 - 천일염종합처리유통센터(1개소), 장기 저장시설(20개소), 포장재(2,513천매)

6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 지역·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수산생물 서식환경 조성 및 수산종자 방류
 - 인공어초 설치(150㏊), 종자 방류(25백만미), 해중림(200㏊)
 - 꼬막·낙지·해삼 자원 회복(3종),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2개소, 100㏊)
- 어업자원 수준에 맞는 어선감척(98척) 및 어업기반시설 지원
 - 노후어선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15개 시군), 공동작업장(6개소)
-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한 갯벌환경 복원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 갯벌 복원사업(1개소), 습지보호구역(6개소)·해양생태계 보호구역(3개소)

□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 노후, 밀식, 바닥오염이 심한 양식어장 개선 및 친환경양식 확산
 - 해조류 양식어장 재배지(6,555㏊), 양식어장 정화(1,900㏊)
 -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보급(4종),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부표 공급
-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로 해양생태계 보호
 - 발생량 조사용역을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쓰레기 수매(11억원), 바닷가 쓰레기 수거·처리(55억원), 선상집하장 설치, 전복패각 자원화시설 건립(1개소)

□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 어선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완도 어업정보통신국을 신설('18.8월 개소)하고, 소형어선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무선전화(606대), 자동소화시스템(254대), 구명조끼(1,805개)
-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낚시어선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및 낚시어선 안전기준 강화
- 어업인 주도 자율관리 우수공동체(14개소) 지원과 불법어업 단속 강화

□ 농어촌 생활기반 조성

- 읍면 중심지를 경제·문화 등이 갖춰진 기초생활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에 일상적인 서비스 공급 기능 확대
 - 읍·면 농촌중심지 거점개발(55지구), 마을단위 생활밀착형 개발(103지구)
-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106지구) 및 다양한 형태의 신규마을 조성(6지구) 사업 전개
- 권역·마을단위 특성을 살린 어촌 종합개발로 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확충
 - 권역·마을단위 특화개발(56개 권역),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역량강화(22명)
- 섬 주민 여객·차량 운임(100억원) 및 생필품 물류비(11억원) 지원

□ 미래 농어업인 육성

- 농어촌을 선도할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
 - 후계농업인(275명), 학사농업인(39명), 수산벤처 대학 및 경영자과정(169명)
- 농어업 분야 청년 창업지원으로 청년 농어업인력 확보
 - 청년 창업농장 조성(10개소), 청년농 영농정착금(144명)
 - 창업어장 개발('17~'18, 30개소), 양식어장 청년창업(10개소)
- 귀농·귀촌·귀어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지원
 - 귀농인의 집(73개소), 농어업 창업·주택 자금 지원 등

□ 온정이 넘치는 농어촌 공동체 회복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확대($1,012 \rightarrow 1,265$ 마을),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연 10만원) 및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21→30개소)
- 10인 미만이 거주하는 섬에 봉사단을 지원하는 '작은 섬 큰 기쁨' 사업 운영과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14개소)

04

관광·문화자원의 품격과 매력 향상

「전라도 방문의 해」 운영과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로 관광객 5천만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 관광지 호감도 전국 2위, 재방문 의향 전국 2위 달성

◉ 관광객 5천만명 맞이 관광인프라 확충 / 47

◉ 관광서비스 개선과 마케팅 강화 / 49

◉ 남도문예 부흥과 산업화 촉진 / 50

◉ 체육경기력 향상과 스포츠산업 육성 / 51

◉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좋은 경관 만들기 / 52



1

관광객 5천만명 맞이 관광인프라 확충

□ 전라도 천년 기념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운영

- 전라도 역사·문화·자연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 콘텐츠 제공
 - 전라도 대표관광지 100선 홍보활동 강화, 국내·외 청소년 문화탐험, 스탬프투어, 명품여행상품 운영, 아트&버스킹, 국제관광컨퍼런스 등
- 다양한 방식의 중점 홍보로 전라도 방문 분위기 확산
 - 전라도 천년사 편찬, TV, 포털사이트,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 국내·외 호남향우회, 관광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공동 홍보 강화

□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기반 확충

-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내실화로 섬 자원의 매력과 가치 제고
 - '18년 2개 섬 선정(10개 섬 기선정), '18년 2개 섬 오픈(4월, 9월)
 - 초고속 인터넷망·공공와이파이 구축, 상하수도 확충, 방범용 CCTV설치
 - '가고 싶은 섬' 사진공모전, UCC 공모전, KTX연계 섬여행상품 개발
-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관광·레저스포츠 기반 조성
 - 빨배 등 관광·체험 시설(13개소), 천일염 등 국가중요 어업유산 관리(3개소)
 - 요트마린 실크로드(23개항, 4개 로드) 및 거점형 복합레포츠센터(목포) 추진
 - 해양레포츠 대회(8회), 해양레포츠 체험교실(9개), 마리나서비스업 창업설명회
- KTX·SRT 운행, 새천년대교 완공('18. 8월), 흑산공항 건설('20년)
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된 전남 서부권의 해양관광 기반 구축
 - 흑산군도 연안크루즈 관광기반 조성('18~'21, 크루즈 1척·도선 5척)
 - 자은도 해양관광단지('17~'20) 및 흑산도 해양항공관광지('18~'21) 조성

□ 생태·문화자원을 연계한 매력있는 관광자원 개발

- 전남과 연관된 외국인 유적지를 정비·복원(58개소)해 관광자원화
 - 황해교류역사관 건립(980억원), 화순 주자묘 정비(18억원), 하멜촌 조성(15억원)
- 국도 77호선을 따라 16개 시·군의 해안을 잇는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을 조성(55km)하고, '남도 명품길' 추가 조성
 - 남도 명품길 2단계 추진('18~'20, 담양 18km, 화순 13km, 완도 14.8km)
-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아시아 최고의 해양 관광·레저시설을 본격 조성하고, 2018 국제와이즈멘 여수대회 개최('18. 8. 2~8. 12)
 - 여수 경도 1단계(~'24) 사업으로 연륙교 건설, 특급호텔·씨푸드 레스토랑 등 건립
 - 여수 청소년 해양스포츠 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착수(국비 2억원)
- 교육과 체험, 레저와 힐링을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 관광지·관광단지(6개소), 생태·녹색관광자원(21개소), 문화관광자원(82개소),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11개소)
 -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18~'27),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구축('18~'22)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핵심관광지 본격 육성

- 선정된 권역별(전남권, 서남권)로 실정에 맞는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 (전남권) 남도살이 체험마을 등 9개 사업, (서남권) 여행자 플랫폼 등 12개 사업
-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시설개선, 콘텐츠 확충, 안내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관광명소·지역 간 연계망 구축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전문인력 양성

- 지역관광의 핵심리더 역할을 할 「전남 청년관광기획자」를 2022년까지 36명을 양성하여, 관광사업체 창업 및 컨설팅 지원
- 다변화된 관광수요에 대응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외국어 해설사 고급화, 광역 해설사 확대 양성(교육, 답사, 경진대회) 등

2

관광서비스 개선과 마케팅 강화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안전보호

- PC, 모바일에 최적화된 스마트관광 안내시스템 구축('18. 10월)
 - 위치 기반 활용 관광정보(식당, 숙소, 관광지 등) 제공, 외국어 홈페이지 등
- 카드 한장으로 쉽게 결제하고, 숙박 등 관광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남도패스' 운영(가맹점 200개소)
- 다변화된 관광수요에 대응해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광객 이용시설 안전관리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
 - 관광시설 안전점검(상·하반기), 노후 화장실 연차적 정비(계속)

 모두가 함께하는 관광환경 조성

- 복지관광 수요증가에 따라 관광약자를 배려한 '열린 관광' 확대
 - 도 지정 관광지 중심으로 맞춤형 무장애 코스 개발(10개) 및 시범운영
 - 돌봄여행자 대상 맞춤형 문화관광해설서비스 지원(해설사 선발·교육)
- 음성과 외국어 변환용 앱을 활용한 여행정보 제공
 - 시각장애인, 노인 등 : 문자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 : 한글 정보를 외국어(65종) 번역 제공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 관광지 광역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 운행코스를 확대하고, 관광객 수요에 맞춘 특색 있는 코스 개발
 - 전북관광지 경유 운행(담양, 장성, 영광, 화순~순창, 고창, 정읍, 남원 등)
 - 젊은 층 대상 2030코스,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남도한바퀴' 운영
- 무안공항 국제노선(160회), 목포·여수항 국제 크루즈(5회) 유치로 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개별 관광객 맞춤형 코스 개발 병행
-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휴양형 마이스상품 개발 및 유치활동 전개
 - 마이스 특화상품(8개소) 육성,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 지원(최대 2천만원)

3

남도문예 부흥과 산업화 촉진

□ 「남도문예 르네상스」 본격 추진

- 「2017 국제수묵프레비엔날레」 성과를 토대로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18.9.~'10.)' 성공적으로 개최
 - 10개국 이상 참가, 관람객 255천명 달성, 2020년 비엔날레 추진동력 확보
- 「남도문예 르네상스」 선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 (종가문화) 고택 탐방 등 종가문화 활성화와 종가·종택 보수사업 시행
 - (전통정원) 新 남도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
 - (미술·바둑) 도립미술관('18~'19), 국립바둑박물관('18~'20)
 - (역사) 황해교류역사관('17~'20), 한국학호남진흥원 운영 활성화

□ 문화예술 기반 확충과 향유기회 확대

- 공립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1읍면 1도서관' 조성으로 지식정보 기반 조성
 - 영암 하정웅 미술관, 무안 각설이 품바 전승관, 곡성 국악명인 전수관 명소화
 - G&J 광주·전남 갤러리, 남도 사이버 갤러리, 전남도청 갤러리 운영
 - 공공도서관(4개소), 작은도서관(1개소), 마을도서관(3개소) 조성
- 통합문화이용권 확대(6→7만원) 및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 조성
 - 찾아가는 문화공연(35회)·예술캠프(3회)·영화관(40회), 작은 영화관(3개소 개관)

□ 문화유산 보존과 콘텐츠산업 육성

- 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해 문화재 가치 제고
 - 문화재 보수정비(378건), 문화재 돌봄(680개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8개소)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선도기업 육성
 -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나주),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구축(순천)

4

체육경기력 향상과 스포츠산업 육성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 전남체육 재도약을 위한 2022년 전국체육대회 목포권 유치 추진
 - 신청('17.8월), 현장실사('18.3월 한), 개최지 결정('18.6월 한), 개최('22.10월)
- 경기 종목별 세부분석을 통한 전국체전 성적 향상 전략을 수립하고,
직장팀 창단 및 지역출신 우수 선수 영입 확대
 - 연고팀 유치 등으로 우수자원 확보, 저비용 고효율 중심의 전략팀 확대
-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18년 상반기)으로 장애인 체육역량을
강화해 전국체전 상위권 진입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건강증진

- 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높여 **생활체육 인구확대 도모**
 - 동호인클럽(6,278→6,500개), 대회(136→140개), 동호인수(186→200천명)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로** 체육복지 증진하고, 어린이·어르신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 이용권(16→17천명), 어린이생활체전('18.9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확대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마케팅 강화

- 종목별 경기장·훈련시설 건립(28건)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130→140개소)
-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 현장점검 및 위해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여수 스포츠 안전교육센터' 건립 추진
- 국내 유일의 영암 F1경주장을 국내 모터스포츠의 메카로 조성
 - 모터락 페스티벌('18. 5월), 전남GT 대회('18. 9월), 튜닝산업 인프라 구축

5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좋은 경관 만들기

□ 친환경디자인 산업 육성과 디자인 공공성 실현

- '제5회 친환경디자인전' 개최('18. 10월)와 '친환경디자인상' 운영으로 친환경디자인 산업 육성 및 저변 확대
 - 우수 친환경디자인 제품·사업 성과물 전시, 잡매칭, 아카데미 운영 등
 -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 공간·건축·시설물 및 아이디어 발굴·표창
-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생산제품 대비 디자인 수준이 낮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상품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
 - 대상확대(마을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6차산업)
 - 대상기업 선정('18.2월, 20개소 내외), 디자인 개발('18.3월~9월)
- 주민이 참여해 지역 정체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개선
 -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2개소), 공공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3개소)

□ 체계적인 경관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 도시재생과 연계해 남도경관 활성화를 도모하고,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 운영으로 우수 아이디어 지속 발굴
 - 지역별 특색을 갖춘 문화자원과 디자인요소 접목으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 남도경관 활성화 사업(2개소), 우수 아이디어 발굴(4개소)
- 생계형 간판 집중지역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상시·집중 정비기간 운영
 - 간판개선시범사업(2개소), 문화개선사업(4개 사업)
- 불합리한 경관위원회 규정·지침 개정 및 자문·심의 강화(월1회, 수시)로 운영 내실화 도모

05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빈틈없는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합계출산율 전국 2위 유지, 국공립 어린이집 60개소 확충

- ◉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 대응 / 55
- ◉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 56
- ◉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57
- ◉ 여성과 가족의 건강한 삶 지원 / 58



1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 대응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농어촌과 섬지역 등 분만 취약지역 출산 환경 개선
 - 공공산후조리원 2, 3, 4호점(강진, 완도, 미정) 설치
 - 분만·외래·찾아가는 산부인과(13개소) 및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4개소) 운영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난임여성 한방치료(100명), 저소득층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800명)
- 공보육 기반 확충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03→119개소), 전남인증어린이집 지정·운영(200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3→7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3개소)

□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시책 강화

- 공동생활시설 운영, 고독사 예방 등을 통해 노인돌봄 강화
 - 노인 공동생활의 집 확충(6개소),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297개단)
 -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확대(325→445개소),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120개소)
- 노인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 지원
 - 65세 이상 결핵 전수조사 실시(4년간 273천명)
 -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22개 시·군), 치매안심요양병동 확충(7개소)
- 노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중장년층 은퇴자 취업교육을 통한
재취업 알선으로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 지원
 - 일자리 사업 확대(27→32천개), 취업교육 및 재취업 알선(4,550→5,300명)
 - 경로당 공동작업장(20개소) 및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6개소) 운영

2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서민시책 지속 확대 추진**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민시책 확대 추진**(55→70개 사업)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1,265개 마을), 행복동지 사업 확대(106→140가구)
 - 소상공인 일수대출 금리인하(연4.9%), 취약계층 정보화 기기 보급(550대) 등
-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사업**」을 확대해 계층이동 기회 제공
 -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70→100개소), 취학 전 아동 학습 바우처 제공(1,500→2,500명)
 - ‘예능 영재키움’ 사업(30명) 및 꿈사다리 온라인 어학교실(2만명) 운영

□ 취약계층 돌봄 내실화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 운영 내실화로 **장애인 불편 해소**
 - 장애인거주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31개소), 직업재활시설 운영(22개소)
 - 수화통역센터(16→18개소) 및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15→18개소) 확대
-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과 위기가정에 대한 공적지원 강화
 -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육성(275개소), ‘청년희망키움통장’ 운영(근로소득공제 10만원 + 정부 근로장려금 30만원 적립, 3년 후 최대 1,500만원 수령)
 - 긴급복지 지원대상 완화(주소득자 → 부소득자까지 확대)

□ 청년의 자립의지 고취

- 「**전남 청년센터**」 설립 및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확대 운영
 - 도 청년센터 설립(1개소), 시·군 청년센터 운영 지원(9개 시·군)
 - 저소득 근로청년의 저축액(월 10만원) 만큼 도에서 추가 적립하는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대상 확대(1,000→ 1,500명)
-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 출신 대학생의 면학 지원을 위해 제2남도 학숙 개관(2월), 본격 운영

3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여건 개선

- 섬 지역 등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
 - 헬기 계류장 이전 건설(신안) 및 헬기 착륙장(5개소) 확충
 - 응급의료기관 운영(71→79개소) 및 응급실 간호인력 파견(3→7개소) 확대
- 농어촌과 섬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163개소), 공중보건의 배치(279개소, 657명)
 - 병원선 운영(166개 도서, 10천명), 병원선 이동형 의료장비 구입(4대)

□ 예방의료 서비스 강화

- 건강증진사업(13개) 실시 및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52천명)로 도민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예방
- 감염병 예방·감시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예방접종(20종 1,800천건), 역학조사반(23개반) 및 격리치료시설(57개소) 운영 등
-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해 심혈관질환법 개정 및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18. 상반기)

□ 통합의료 및 한의약산업 육성

- 연구·치료 중심의 통합의학센터 운영으로 통합의료 중심지 선점
 - 만성염증성질환자 전국 단위 진료, 병상 확대(100→150병상)
 - 의·한 협진 시범사업 시행 및 통합의료 과학적 근거 마련 R&D 공모 참여
 - 2018 통합의학박람회 개최(10월), 2020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한의학 산업화 기반 구축
 - 토종 한약재 재배면적 확대(15→118천㎡) 및 지식 재산권 확보(9건)
 -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건립 착공(3월, 8천㎡), 약효 표준화(6품목) 등

4

여성과 가족의 건강한 삶 지원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경력단절·청년여성에 대한 취업·창업 활동 지원 강화
 - 전남여성 일자리박람회(4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3개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매니저 배치(9개소), 여성 창업 경진대회 개최
-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의 정책참여 기회 제공
 - 각종 위원회 여성 위촉률 제고(40% 이상), 양성평등키움단 운영(100명)

□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전남 다문화가족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108개소)
 - 다문화자녀 성장발달 지원, 이중언어 전문인력 양성, 다문화 사회적 기업 육성
- 한부모 가족 등 취약가정의 생활안정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및 대상 확대(월 13만원/만 14세 미만)
 -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 확대 운영(10→16개소)

□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아동수당 지급(5세 이하, 월 10만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 확대(15→21개 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380개소)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보호와 자립기반 마련
 - 아동보호전문기관(3개소) 및 학대피해아동쉼터(6개소) 운영
 - 자립지원금 확대(400~500만원),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인상(100→150만원)
-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16개소), 학업중단 청소년 일자리 체험(120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개소) 및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54명) 운영

06

SOC 확충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 있는 개발로 모두가 잘 사는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 흑산공항 착공, 도로 및 연륙연도교 70개 지구 건설

- ④ 광역교통망 지속 확충 / 61
- ④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 / 63
- ④ 미래 지향적 도시 환경 정비 / 64
- ④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균형개발 / 65



1

광역교통망 지속 확충

□ 철도망 구축

-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구간 중 광주송정~고막원 구간(26.4km)은 '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국제공항 경유가 확정됨에 따라 고막원~목포 노선은 기본계획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 조속 이행
- **남해안철도**(보성~목포, 82.5km)는 '2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 **경전선 전철화**(광주 송정~순천)은 올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목표로 추진
- 정부정책에 미반영된 SOC 확충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
 -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서해안(목포~군산) 철도, 서울~제주 해저고속철도 등

□ 도로 및 연륙·연도교 건설

-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 구간은 '24년까지 개통하고 2단계(강진~해남) 구간 국가계획 반영 지속 건의
- 국도는 담양~순창 등 24개 지구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무안 일로~몽탄 등 10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시행
- **연륙·연도교**는 시공 중인 12개 지구를 '22년까지 완공하고 신안 압해~암태 새천년 대교는 '18. 8월까지 준공
 - '19년 준공(5개 교량) 고흥 적금~여수 화양 간 4개 교량, 영광~해제 칠산대교
 - '20년 준공(2개 교량) 지도~임자 간 지도대교 및 임자대교
 - '22년 준공(4개 교량) 암태~추포 간 연도교, 지방도 3개 교량
- **지방도**는 화순 도암~장흥 유치, 나주IC~동신대, 곡성~죽곡 등 3개 지구를 완공하고, 유치~이양 등 23개 지구는 계획기간 내 준공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흑산공항 조기 착공

- **무안국제공항**은 호남고속철도 노선 조기 개통과 부족한 기반 시설 확장, 국제선 다변화로 공항 활성화
 - 활주로 연장(2,800→3,200m), 수화물 처리시설 확충(1→2기), 계류장 확대(5→7개)
 - 무안~일본·대만·동남아 직항 개설, 무안~제주 노선과 연계한 국제선의 다변화, 정기성 전세기 운항 확대 등 항공수요 창출에 노력
- **흑산공항**은 '18년 상반기 중 국립공원계획 변경심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해 '20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 추진
 -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신안군과 협력해 항공기와 조류 충돌 가능성 등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심의 보류 사유 적극 보완

□ 항만 경쟁력 제고 및 다기능 항만 개발

- **광양항**은 항만기반시설을 확충해 동북아 물류 선도지역으로 육성
 -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 구축(138억원)
 -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기 확충(15개 사업 2조 7천억원)
 - 노후항만 현대화, 대형선박 입출항 항로정비 및 해역준설, 석유화학 둘핀시설 건설
- **목포항**은 항만별 특성에 맞게 특화 개발해 환항해권 거점항으로 육성
 - 항만배후단지 1,2단계 726㎡, 자동차부두 1선식, 크루즈부두 1선식
 - (신항) 자동차, 철재 (내항) 마리나 (북항) 수산 (남항) 해양관광
- **지방어항·항만**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 강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 항만으로 개발
 - (지방어항) 방파제 등 기반시설 확충 14개항, 어항 시설 보수·보강 10개항
 - (지방항만) 홍도항 남방파제, 완도항 해경전용부두, 진도항·나로도항 등 개발

2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

□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 공공기관장협의회 및 지역발전분과위원회(5개 분과) 운영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
- 주거·교육·의료시설 조기 확충으로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
 - 공동주택 공급(17,943세대), 교육기관 확대(개교 11개소 → '20년까지 17개소)
 - 동신대한방병원('18.7월), 빛가람병원('19.6월) 개원
 -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계획수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북측도로 건설(0.98km)
-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투자유치 촉진
 - 혁신도시 발전센터 건립, 산·학·연 클러스터 잔여 부지 조기 분양(83천㎡)
 - 이전 공공기관 연관기업·수도권 이전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개최(3회)

□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본격화

-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화가 완료된 솔라시도 개발 본격화
 - (구성지구) 레저주택 1,000세대 및 골프장 18홀 기반조성 공사
 - (삼호지구) 골프장 45홀 운영 개시 및 골프러닝센터 착공
 - (삼포지구)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100억원)
-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영암 삼호읍~해남 산이면, 10km)는 '2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

- 광양만권 철강·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단 개발
 - (세풍산단) 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센터 준공(3월), 바이오 소재 패키징산업 기능 집적화
 - (해룡산단)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술지원센터 기반을 활용한 특화단지 조성
- 입주기업 지원 서비스 강화 및 개발완료 산단 투자유치 적극 전개
 - 기능인력 양성, 1기업 1도우미제, 찾아가는 건축행정상담반 운영(연 4회)
 - 국내·외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잠재 투자기업 초청 현장시찰 강화(30회)

3

미래 지향적 도시 환경 정비

□ 합리적인 도시 공간구조 계획 수립

- 주민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건강을 지향하는 도시계획 추진
 - 도시·군 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건강도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이상기후(지진·폭우 등)로 인한 대규모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풍수해 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연계

□ 중소도시를 살리는 도시공간 재편

-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5개 사업, 915억 원)
 - (우리동네살리기) 나주 역전마을, (일반근린형) 순천 비타민, 갈마골, (주거지지원형) 목포 보리마당, (중심시가지형) 목포 1897 개항문화거리, 순천 봉미락이 있는 청사뜰
 - 「전라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 시·군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쇠퇴한 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활력 증진사업 추진(6개 사업, 58억 원)
 - 목포 근대역사테마길 조성, 순천 도시생활환경 개선, 광양 문화공원 조성 등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건축문화진흥계획 수립

- 교통수단 및 시설에 스마트 첨단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
 - 목포시내에 CCTV, 교차로 감시카메라, 광케이블, 교통전광판, 첨단신호등 설치
- **건축자원 활용과 근대 역사·문화 자원 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건축자산 보전과 관광자원화 추진

4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균형개발

□ 계획적인 지역개발로 성장잠재력 제고

- 성장촉진지역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인프라, 지역특화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지원사업** 추진(36개 사업, 661억 원)
- 관광·문화·특화산업을 활용한 **지역 발전거점 조성사업** 추진
 - (공모 선정사업) 고흥만 꽃구름길,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등(15개 사업, 117억 원)
 - (구상사업) 남해안권 발전거점조성 사업, 해안·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사업

□ 도시민 유입을 위한 정주공간 마련

- 은퇴자를 위한 매력있는 **새꿈도시 조성**
 - 장흥 로하스타운(분양중), 무안 청계 월선지구(상반기 착공), 담양 대덕지구(하반기 착공)
-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상업·의료·기반시설** 등 복합적 용도를 갖춘 주거단지 확충
 -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1,277천m²), 나주·장성·화순등에 추가사업 유치
- 도시민들이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시텃밭 제공**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근린공원 부지(15개소)

□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 쾌적한 주거용지 공급과 택지난 해소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시행(15개 지구 10,292천m², 계획인구 117천명)
 - (추진 중) 순천 용당, 나주 남평, 광양 와우, 함평 기각 등 9개 지구
 - (실시계획) 목포 임성, 광양 목성 등 5개 지구 - (지구지정) 여수 죽림지구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 마을회관, 소공원, 상·하수도 설치 등 농촌 중심지 활성화(6개 지구)
 -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130동, 빙집정비 1,076동, 농어촌 주택개량 1,600동

□ 산업·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
 - 진입도로 개설(세풍산단 등 6개소), 공업용수 관로 매립(담양산단 등 2개소)
 - 농공단지 개보수(나주 동수 농공단지 등 6개소), 특화농공단지 조성(곡성 운곡 등 3개소)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디자인개발, IP보호, 마케팅 지원('18~'20, 30억원)
- 산업단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용지 공급
 - 선(先)공급, 후(後)분양 방식에서 실수요자 개발로 전환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혁신역량 강화
 - (여수산단) 혁신지원센터 구축,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3개 사업
 - (대불산단)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레저선박 부품고급화 기반구축 등 4개 사업
- 여수국가산업단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합안전체계 구축
 - 안전진단, 지리정보시스템 DB 보완, 교육훈련센터 구축('18~'22, 253억원)

□ 지하시설물 전산화로 도시 안전환경 구축

- 도로 굴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대 지하시설물* 전산화로 체계적 관리
 - '18년 신규시행(고흥), 미 완료 5개 군(화순·곡성·함평·진도·신안)은 '19년 신규사업 건의
- * 상·하수도(지자체),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난방열관(유관기관)

□ 전남 균형발전 5개년('18~'22)계획 수립

-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포함한 「전라남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18. 6월)하고 중앙정부 심의를 거쳐 확정·추진
 - 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 혁신도시 운영·육성, 인력양성, 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문화·관광 육성, 복지·의료 확충 등 포함
- 관련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운영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된 계획에 포함된 사업 국고확보 추진

07

도민 안전 강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관리와 수질 개선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수 10% 감축,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저

④ 재난·재해로 부터 도민 안전 보호 / 69

④ 맑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71

④ 자연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 72



1

재난·재해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 성숙한 지역 안전문화 정착

-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안전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문화캠페인 확산으로 생활안전사고 발생건수 감축(7,109명→6,938명)
 - 교통안전 ‘고맙습니다! 캠페인’ 연중 전개, 안전 택시운전사 선발(40명), 안전점검의 날 운영 내실화(매월 4일)
 - 안전신문고·도민 안전점검청구제 정착, 안전관리 우수시설 인증 확대(8→30개소)
-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 다발지역의 구조적 취약요인을 집중 개선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328명→295명)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29개소 추가 지정(22억원), 읍·면지역 보차흔용도로 정비(6억원), 여수산단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38개 노선, 10억원)
- 안전 체험교육 인프라 확충* 및 도민의 30% 이상 안전교육 실시
 - 안전체험관(9개소) 및 수련시설(12개소)의 안전교육 콘텐츠 보강
 - 민간안전강사 역량강화교육(180명), 고령자 ‘안전학당’ 전 시군 확대

* '19년까지 체험관 12개소 개관(9개소 운영 중, '18년 무안·영광 추가 구축)

□ 안전 위해요인 선제적 관리

- 국가안전대진단('18. 2월~3월)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중·대형 시설물* 정기점검·진단 강화로 재난사고 사전 예방
 - A·B·C등급 7,110개소 반기 1회, D등급 40개소 월 1회 정기점검
 - 재가설, 보수·보강 등이 시급한 재난위험시설 28개소 위험요인 적기 해소
- 원전안전 모니터링 상시 가동, 원전사고 발생시 주민보호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원전 안전성 확보대책의 실효성 제고
 - 방재지원시스템 및 환경방사선 모니터링시스템 운영(9개 기관)
 -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지원(1억원), 한빛 1·2호기 폐로 대비 로드맵 수립

□ 체계적인 자연재해예방사업 추진

- 잦은 지진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
 - 내진사업비 미확보액(132억원) 국비지원 건의, 공공시설물 내진율 42% 달성
 - 그늘막 설치(143개소) 재난도우미·노인돌봄 15,109명 활용 고령자 관리
- **자연재해 피해 우려지역 정비·관리사업 적기 마무리**
 - 자연재해위험개선(33지구 804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5지구 394억원)
 - 급경사지 봉괴위험지구(24지구 246억원), 재해위험 저수지(19지구 20억원), 소하천 정비(56지구 412억원), 국가지방하천 정비·관리(261지구, 1,176억원)

□ 신속한 대응·복구체계 확립

- 유사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재난대응훈련 실시**
 -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개선·정비(33종), 안전한국훈련(5월, 23회)
-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안정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 도·시군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활성화,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 소방력 보강으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한 현장대응 태세 확립 및 예방활동 강화
 -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특정소방대상물(1,780개소) 합동소방훈련(주1회)
 - 대형화재 위험시설(6,547개소) 관리,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환경개선(25개소)
- 분산된 소방자원을 통합관리하고, 도내 전역 1시간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본부 장흥군 신축이전 및 소방 인프라 확충**
 - 소방관서 신설 3개소(소방서 1, 안전센터 2), 소방인력 충원(380명), 노후소방장비 교체(차량 73대, 장비 29,767점), 소방드론 운용

2

맑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모든 시군에 1기 이상 대기측정망을 설치하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 전기 자동차 527대(총전기 330기), 전기 이륜차 190대
 - 경유사용 버스 및 청소차 114대(버스 100, 청소차 14) 천연가스차로 교체
-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 '05년 이전 제작된 노후차 3,907대 우선 폐차, 어린이 통학차량 103대 교체

□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질개선

- 수돗물 미 보급 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 및 노후 수도관 교체로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 상수도시설 확충(74개소), 노후 상수도관 교체(33개구역 254km)
 - 하수처리장 확충(10개소),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9개소), 하수시설 정비(112개소)
- 강·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통해 3대강(영산강·섬진강·탐진강)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복원 지속 추진
 - 하수·분뇨처리시설 확충(102개소), 비점오염저감(4개소), 하천·하구 정화(14사군)
 - 생태하천 복원(11개 하천), 주암호 연꽃습지 조성(24,600㎡), 죽산보 개방

□ 자원재활용 및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

- 생활폐기물의 소각·매립·재활용시설 확충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4,688개소) 지도·점검 강화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8개소), 재활용산업 육성 조례 제정·시행
-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빛 공해 예방대책 추진
 -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화학재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야간조명에 의한 빛공해 측정 분석(210개소),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3

자연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의 체계적 관리

- 전남 갯벌의 체계적 보전·관리로 갯벌의 가치 제고
 - 무안·신안 갯벌의 국립공원 승격 추진(199km^2) - 무안 37, 신안 162
 - 영광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7.0km^2), 도립공원 시설·운영비 지원(10개소)
-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및 순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938km^2)으로 우수한 생태자원 보호
 -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전남 9개소, 550.18km^2)
- 해안 수변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 규모 등을 제한하는 우수 해안 「경관지구」로 지정

□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생태관광 활성화

- 다양한 생물종 보전을 위해 철새 도래지 보호, 멸종위기 식물 서식환경 연구 및 증식사업 추진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 3개 시·군(순천, 해남, 진도), 1,140ha
- 자연친화형 생태탐방로 및 생태놀이터를 조성해 가족단위 휴식 공간 제공과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 생태탐방로 2개소, 생태탐방로·데크 등(8km), 생태놀이터 1개소(3천m^2)

□ 신기후 체제에 대비한 이행체계 구축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BAU대비 37%) 달성을 위한 「2030 전라 남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시행
 - 2030 전라남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립 용역('17. 8.~'18. 4.)
- 국립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추진 및 저탄소 실천 분위기 확산
 - 그린리더 양성(1,500명),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2,500개소)
 - 탄소포인트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정,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

08

상생과 소통의 열린 도정 구현

국내외 교류협력을 확대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민 참여를 늘려 열린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청렴도 평가 한 자릿수 달성, 보건환경연구·도로관리 동부 분원 설치

- ▶ 국내외 교류·협력 확대 / 75
- ▶ 도민 소통행정 강화 / 76
- ▶ 밝고 맑은 전남 만들기 추진 / 77



1

국내외 교류·협력 확대

□ 국제 교류·협력 다변화 및 효율화

- 미국, 중국, 일본 중심의 교류를 넘어 도정 역점사업인 **에너지·백신·농수산 분야 협력가능 지역으로 교류 다변화**
 - (유럽) 농업·에너지·백신산업 등과 연계한 교류 추진
 - (인도·동남아) 농수산기술 및 수출, 유학생 유치 등 지방정부간 교류 확대
- 중국·일본 등 자매·우호지역과 교류협력 강화 및 내실화
 - 일본 사가현과 자매결연, 중국 저장성·장시성·산시성과 교류협력 강화
- 해외통상사무소 기능보강 및 운영 개선으로 국제협력 뒷받침
 - 현지 사정에 밝은 인사 소장 채용, 5·6급 공무원 파견, 현지 인력보강(2명 이상)

□ 광역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확대

- 광주와는 에너지밸리 조성,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등 22개 협력과제 추진 및 실무협의회, 간부급 정책간담회 활성화
- 호남권의 역사적·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7대분야 30개 분야)’ 추진
- 서울·경기·경북과는 지역적 한계와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고,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상호보완과 상생발전 체계 구축

□ 도와 시·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행정 확대**
 -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의회 운영, 시군 부단체장 대면회의 개최(수시)
- 긴급한 지역 현안에 대해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동부권에 보건환경연구원 분원 및 도로관리사업소 지소 신설

2

도민 소통행정 강화

□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도민이 참여하는 「현장 소통의 날」을 확대해 행정 사각지대 해소

-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설, 현장 소통의 날(분기 1회), 출향인초청 간담회

- 도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감사·
홍보에 도민의 참여기회 확대

- 도민평가단 확대(50명→100), 도민 명예감사관(93명)·명예기자(120명) 운영

□ 도의회와 소통 및 공조체제 유지

- 도의회와 소통을 확대해 도정 운영 협력체계 강화

- 도지사-의장단 정례 회동(분기 1회), 상임위원-실·국장(수시)

- 도의회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관리하고,
추진상황의 주기적인 점검·보완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 도정 홍보강화로 도민 공감대 확산

- 뉴미디어, 버스 영상광고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이용한 도정
주요시책 홍보 강화

- SNS, 인터넷방송, 뉴스레터, 전남새뜸, 마을방송 등을 적극 활용

- 언론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강화

- 수시 도정 브리핑, 언론·행정 간 간담회, 보도자료 발굴·적기 제공

- 해외홍보 확대로 전남 브랜드 가치 및 이미지 제고

- 한·중 관계 정상화에 발맞춰 대중국 홍보 강화, 외신 언론 초청 팸투어

- 글로벌 SNS 서포터즈단(10명) 활용, 아리랑TV(188개국)에 홍보 CF 방영

3

밝고 맑은 전남 만들기 추진**□ 범도민 청렴문화 확산 및 행정혁신 추진**

- 권익위 청렴도 평가순위를 한 자릿수로 높이고, (가칭)‘청렴전남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청렴문화를民間까지 확산
 - 공직사회 관행문화 개선, 범도민 청렴실천 캠페인 및 청렴포럼 개최
- 지방분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일 중심의 행정쇄신으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
 - 불합리한 관행 개선, 내·외부 만족도 조사, 미래에 대비한 전문가 양성

□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 적극 개선

- 고충민원에 대해 관련 기관 간 협업 및 원스톱 처리로 도민 만족도 제고
 - 복합민원 관계기관 협업체제 구축,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내실화
-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및 피해자·관련자 지원
 - 5·18 기념사업,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민주화운동 유기족 생계비 지원
- 행정 쟁송사건의 신속공정한 해결로 도민 권리를 보호하고, 도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과제 적극 발굴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확대(월 2회), 중요사건 현장확인, 구술심리 강화

□ 지방재정 건전 운영 및 공정·신속한 회계 처리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강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3년 연속('16~'18) 도세 1조원 이상 확보
- 회계집행의 전 과정을 공개해 회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회계집행상황 도 누리집에 공개, 경쟁입찰 및 적정평가 심사제도 확대